

속표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중점과제

교육 역량 및 가치

일반고 역량 강화와 고교 균형 발전
혁신학교 질적 심화와 다양화
공존과 상생의 '세계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 협력 및 문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결합형 학교' 실현
자치단체 협력 '혁신교육지구' 확대
평화롭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교육 복지 및 공공성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확대 및 강화
유아교육 지원 확대와 사학 공공성 강화
'학교평등예산제'로 교육 격차 해소

교육 행정 및 제도

교원 업무 정상화 및 전문성 신장
교육비리 근절과 공감형 행정문화 구현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제도 구축

'조박대박 교육시대' -원순씨와 희연쌤의 교육혁신도시 서울 선언문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 도시 서울선언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민관과이 협치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2

소외받는
어린이 청소년이 없는
어린이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

교육개혁과 학교혁신으로
21세기형 미래인재를
기르겠습니다.

4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시대를
열겠습니다.

5

서울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를 만들겠습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모범도시

어린이청소년
모든시민의 희망찬 미래



돌봄과 배움의
성장지원망 구축
+
참여와 자치를
보장
+
어린이 청소년에게
평등한 배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무한경쟁과
줄세우기



협력과 공유
지속성의 가치



한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필요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배움과 성장의
마을
공동체

청소년들의
온전한 성장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껏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공동체



학교협동조합 포럼 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비고
15:30~15:35	개회		
15:35~15:40	인사 말씀		
15:45~16:00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	이상훈 (성공회대 교수)	주제발표
16:00~16:15	학교협동조합 운영 사례를 통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정미숙 (삼각산고 교사)	주제발표
16:15~16:30	학교협동조합 발전 방안	김명신 (서울시학교협동조합 추진단장)	주제발표
16:35~16:50	지정 토론(연구자, 교원, 마을주민)	홍태숙(독산고 교사) 장이수(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 네트워크 연구위원)	지정토론 (5분씩)
16:55~17:25	플로어 토론(질의·응답 포함)	좌장	
17:25~17:30	폐회	좌장	

CONTENTS



I. 주제 발표

1.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 3
이상훈 / 성공회대 교수
2. 학교협동조합 운영사례를 통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11
정미숙 / 삼각산고 교사
3. 학교협동조합 발전 방안 15
김명신 / 서울시학교협동조합추진단장

II. 지정 토론

1. 「사회적경제」 교육 사례 23
홍태숙 / 독산고 교사
2. 학교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41
장이수 /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학교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44
박주희 / 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연구위원



2015 제1차 학교협동조합 포럼

I . 주제 발표

1.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 3
이상훈 / 성공회대 교수
2. 학교협동조합 운영사례를 통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11
정미숙 / 삼각산고 교사
3. 학교협동조합 발전 방안 15
김명신 / 서울시학교협동조합추진단장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

이상훈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 경영학과

내용 목차

1. 들어가며
2. 협동조합의 설립 배경 및 의의
3. 협동조합과 교육의 연계
4. 마치며

1

들어가며

최근 서점 웹사이트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책을 검색해보면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책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1세기의 대안 협동조합운동』,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등은 협동조합의 역사를,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사람 중심비즈니스 협동조합』,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등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운영원리를, 『협동조합 참 좋다』, 『몬드리아의 기적』,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등은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자, 학교협동조합』과 같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내용과 협동조합의 불꽃을 지핀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 등 최근 발간되는 책의 주제도, 관심대상도 다양하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은 협동조합을 알리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협동조합의 역사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고 가까운 과거에는 1980년대 시민운동의 형태로 나타났으나 협동조합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채 소수의 사회운동이나 먹거리 직거래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고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최근 2-3년 사이의 일이지만, 그 사이 급속하게 진행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들은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의 모습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의미 있는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에도 협동조합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 영림중학교에서 2012년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싶은 요구를 가



진 학교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매점을 함께 운영하는 모델을 만들어낸 후¹⁾ 이들과 유사한 필요를 느끼고 있던 학교구성원과 관계자들 사이에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후 서울 독산고와 경기도 복정고 등 많은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고 말레이시아 학교협동조합이나 영국, 핀란드 교육기관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한 연수도 여러 단위에서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현재 학교 구성원들이 만든 협동조합은 주로 매점을 운영하는 실험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적 흐름을 협동조합의 역사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을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국내외 협동조합의 역사를 개괄하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 설립 과정과 외국 학교와 국내 대학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현황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다양한 시도에는 학교-협동조합-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틀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2 협동조합의 설립 배경 및 의의

가. 국외 협동조합 운동의 출발

오늘날 협동조합의 출발점으로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상 그 전에도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실패하는 반복된 경험이 있었다. 로치데일조합 이전 18세기 후반 영국에는 노동자들이 지방상인의 독점을 깨뜨리고 품질이 좋은 빵과 밀가루를 얻기 위해 제빵협동조합이나 제분소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했다. 로치데일조합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선배들의 경험을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자신들의 조직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고 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변화해왔기 때문이었다. 로치데일조합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이후 로치데일조합 운영 경험을 도입한 수많은 협동조합의 설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 시기 협동조합이 발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당시 유럽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인구가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로치데일조합이 만들어진 맨체스터 지역만 봐도 1801년에 비해 1841년 인구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도시인구의 급작스런 유입에 대비하기 어려웠던 도시에서 사람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야 했고 장시간의 고된 노동까지

1) 영림중학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전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점을 운영하다가 법 시행 후 교사, 학부모, 학생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매점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생협 학부모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안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매점 물품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매점 물품의 대부분을 친환경물품으로 구성하였다. 초창기 여러 법적, 제도적, 인적, 물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낸 첫 사례였기 때문에 이후 학교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에 유용한 실천적 도움을 주었다.

해야 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어린 자녀들마저 학교교육은 고사하고 노동 현장에서 장기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공장주들은 급여를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하여 공장 내에 있는 가게에서 쿠폰을 이용하여 식료품을 사도록 강요하기도 했는데 공장 내 가게에서 판매하는 식료품은 품질이 조악하고 양도 정량보다 부족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로치데일조합의 조합원들처럼 서로 연대하여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고 협동조합은 그들에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들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 중에 로버트 오언이 있다. 그는 협동을 통한 경제활동의 가능성 을 직접 실험하였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모아서 뉴라나크에 있는 장인의 방적공장을 사들여 자신이 직접 경영했다. 그곳에는 일하는 노동자 가족별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 있었고 부모가 일하는 동안 어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와 유치원을 겸한 성격형성학교가 있었다. 이러한 실험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새로운 것이었고 이후 협동조합인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다. 프랑스에서는 고댕이 노동자가 공동 소유하는 주물제조공장을 설립하였고 생산과 주거 공동체인 파밀리스테르를 만들기도 했다.

나. 한국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

한국에서 협동조합은 일제 식민지시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20년대 일본 유학생 그룹과 YMCA, 천도교 등 다양한 민족주의 세력이 협동조합을 조직하였고 이후 노동운동 및 농민운동과 연계되어 확산되었으나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식민지배가 대륙 진출을 위한 동원체제로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해산되었다.

해방 후 협동조합을 재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은 1960년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결실을 맺었다. 당시 부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메리놀회 소속 선교사 메리 가브리엘 수녀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코디신부에 의해 추진된 안티고니쉬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 가난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금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조직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장대익 신부가 전쟁으로 인한 가난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구호물자에 의지하여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근로의욕과 자립정신을 상실하는 것을 보고, 자립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 절실했을 깨닫고 신협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신용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과 병행하여 협동경제연구회에서 조합원과 미래의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1980년대 들어 친환경농업의 실현과 농산물 직거래를 바탕으로 한 원주에서의 한살림운동을 비롯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등장한다.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 협동조합의 성장을 견인했던 생협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시장을 개척했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방식의 혁신을 가져왔다. 로치데일원칙에 따라 조합원 교육과 직원 훈련을 위해 노력했고 조합원의 참여 문화를 일구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생협의 가치를 비조합원에게도 확산했다.



다. 협동조합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의 성장과정을 보면 국가(정부)의 개입이나 지원보다는 조합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조합원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조합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사장과 경영진의 협업을 통해 실행된다. 이사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조합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모든 조합원은 출자금의 과다나 조합과의 거래 규모에 관계없이 조합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1인 1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합원들은 신규조합원 모집, 물품 심사,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모든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활동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은 누구나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둘째, 협동조합은 사업체를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사업 자본을 조합원의 힘으로 마련한다. 따라서 조합원은 가입 시에 출자금을 납부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합비를 납부하여 조합의 운영비를 책임진다. 이것이 조합의 국가로부터의 독립적 존립과 운영을 담보하는 조건이다.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협동조합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러한 조직은 조합원의 필요와 요구보다는 국가의 요구가 먼저 관철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협동조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기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자치적 결사체이다.(1995)

이런 정의에 비추어볼 때 국가에 의존하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협동조합은 진정한 협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협동조합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중시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므로 협동조합 사업체의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고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므로 조합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경영 관련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도 포함한다. 협동조합이 성장하여 경제적 성과가 누적되어 있을 때나 협동조합의 운영이 어려울 때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협동조합이 존속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협동조합은 교육과 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로치데일조합부터 오늘날 생협이나 중소규모 생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교육과 직원 훈련의 중요성을 자

각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고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자발성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평등하며, 연대와 협동의 정신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사업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동조합의 확산은 사회적으로 민주성, 평등, 자발성, 연대의 정신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협동조합을 교육한다는 것은 이러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뿌리내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심고 가꾸어 갈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3 협동조합과 교육의 연계

가. 학교 협동조합의 필요성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 네트워크가 무너져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역사의 첫 번째 단계인 일제시대는 우리나라 협동의 정신을 말살하는 시기였다.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고 협동하는 것을 금기 시 하였다. 해방과 함께 찾아온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동족끼리 서로 충부리를 겨누는 6·25전쟁을 치르면서 동족끼리, 같은 마을 사람끼리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실제 전쟁을 통해 군인들끼리 전투를 벌인 상황을 넘어 서로 상대 진영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마을 사람들을 내세워 양민학살이 곳곳에서 자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구성원간의 믿음과 신뢰가 깨지는 사회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전체에 집단화가 요구되는 사회가 되었다. 개인은 각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집단 속에서의 역할을 강요받았고, 집단의 성공을 위해 개인은 하나의 부품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집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요구되었고,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자주적 노력은 철저히 배제되고 심지어 반국가적 행위로 절대 용인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를 위해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해체되어 그동안 지속되어온 사회 네트워크가 해체되어 갔다. 또한 산업발전을 위해 무한의 노동이 요구되면서 가족 간의 만남이 제한되고 이는 가족 간의 교류와 교감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낳았고 결국은 가족 간의 긴밀한 관계가 갈등으로 변질되어 갔다. 민주화가 진행된 네 번째 단계에서는 권력의 힘보다는 화폐 중심의 경제가 모든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신자유경제체제에서 모든 사람은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살아가는 모든 가치가 화폐로 대변되는 돈을 중심을 형성되어 갔다. 군사정권시절부터 시작된 성공을 위한 대학진학에 대한 열망이 모든 교육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바꾸어 버렸고, 학생개



인의 차별화된 능력보다는 대학입학을 위한 성적위주의 줄세우기가 당연시되어 버렸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 간에도 경쟁의 논리만 남게 되어 학생들 간의 반목, 편가르기, 무시, 괴롭힘 등이 곳곳에서 발생해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였다. 결국 사람중심이 아닌 화폐중심의 논리가 사회의 가치를 삶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돈 버는 것으로 몰아갔고 금융이 경제사회를 지배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회가 진행되어 오면서 협동의 정신, 신뢰와 믿음, 민주적·자주적 역할과 참여, 인간중심의 사회관계를 무너지게 되었고, 이는 사회네트워크 해체라는 결과를 낳았다.

나. 국내 학교협동조합 설립 사례

협동조합기본법은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협동조합 유형을 크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해도 조합원 개개인에게 배당할 수 없고 해산 시 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순자산은 다른 협동조합이나 공익기업에게 이전된다는 점이다.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익성 기준에 부합하며, 만일 학교협동조합이 일반협동조합으로 설립될 경우 조합원들의 수익성 추구로 인해 오히려 비조합원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를 띤다.

영림중학교 학교협동조합은 기본법이 제정된 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시 독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일반협동조합으로 시작해서 매점 운영권을 확보하고 추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매점입찰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유해한 고칼로리, 저영양 식음료 대신 안전하고 건강한 식음료를 판매하도록 지원하는 건강매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013년 독산고는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건강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독산고 건강매점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매점사업에 응찰하였으나 최고가입찰제²⁾에서 다른 경쟁자들에게 밀려 매점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2014년 5월 기준 조합을 해산하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이사가 되고 주민을 포함한 4주체가 조합원이 되어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 인가를 획득한 후에 학교매점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낙찰되어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학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독산고등학교 건강매점 협동조합은 건강매점 입찰에서 패찰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에도 예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협동조합교육을 실시하였다.

독산고와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6개 추진학교를 선정하여 학교협동조합을 추진하였다. 추진학교 중 성남시 복정고등학교는 2013년 6월에 ‘복정고 교육복지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성남시 복정고 교육복지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은 공립학교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의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도 공개입찰을 통한 사용수의허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물법 제20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의허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 낙찰에 의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조합'을 창립하였고 2013년 10월 매점 '복스쿱스'를 개소하였다. 복정고의 경우 학교협동조합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교육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서울시 삼각산고등학교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학교매점운영을 위한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발기인모임을 진행하고 학교협동조합 설립교육을 여러 차례 받은 후 2014년 12월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조합원은 학부모, 교사, 학생, 주민 6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부모 3인과 교사 4인, 학생 7인이 이사를 맡았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이미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학교협동조합추진단을 구성하여 학교협동조합 창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다. 외국의 협동조합과 학교 연계 사례

영국에서는 시험위주의 학교운영에 대한 학교개혁의 한 가지 대안으로 트러스트학교와 아카데미가 확산되고 있다. 트러스트학교는 외부 지역사회나 기관, 사업체 등이 학교에 기금을 기부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영국 코퍼리티브그룹에서 기금을 기부하여 만든 협동조합 트러스트학교에서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적인 이해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시키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가르치기 위한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정규교과과정으로 개설하였다. 또한 공교육기관이지만 자율성을 인정하는 아카데미학교라는 제도를 두었는데 협동조합 아카데미학교는 학교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트러스트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가 학교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이다.

협동조합교육 지원기관인 영국 쿱칼리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책이나 보드게임, 온라인게임,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협동조합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은 공정무역협동조합을 만들어 공정무역 물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핀란드의 경우 27개 대학교에서 학생 협동조합 창업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한 '협동조합 팀창업 프로그램(co-operative team entrepreneurship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7개 대학이 참여하여 온라인 협동조합 대학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동조합 연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스페인 몬드리곤 대학에서도 협동조합 창업교육과정(4년)을 운영하고 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협동조합의 역사와 가치, 학교협동조합 사례, 근·현대 사회네트워크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학교와 협동조합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학교와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은 처음에는 매점운영이라는 사업체를 통해 접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경험하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과 학교가 협동조합을 통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이를 통해서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무너졌던 사회네트워크를 복원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의 교육을 통해 협동의 정신, 신뢰와 믿음, 민주적·자주적 역할과 참여, 인간중심의 사회관계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적으로 체험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의 네트워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사회화과정을 겪고 있고,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천적 현장교육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해 줌으로서 성인이 되었을 때 이를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독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던 학부모들은 오랫동안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마을에서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에게 마을이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듯이 마을과 학교가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다. 협동조합이 단지 매점을 운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주민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데서도 나타난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은 학부모 16명, 교사 10명, 학생 2명 그리고 주민 1명이었다. 삼각산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추진단이 정한 학교협동조합 추진 방향에는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교육공동체로서 학교협동조합 운영, 교육주체(교사,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방식으로 운영,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학교는 외부와 단절된 교사와 학생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여겨져 왔으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학교를 마을로부터 단절시켰던 벽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외부 네트워크를 포함한 학교협동조합을 경험하고 협동조합에 대해 학습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성과 평등의 가치, 자발적 참여의 기쁨 그리고 협동과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가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대학에서는 창업교육 형태로 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 핀란드와 스페인 몬드리곤대학과 유사하게 성공회대학교에서도 학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창업 교육과정과 학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협동조합컨퍼런스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지만,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매점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협동조합창업교육에 참여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협동조합컨퍼런스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졸업 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협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면 협동조합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협동조합 운영사례를 통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정 미 숙
삼 각 산 고 교 사

내용 목차

1. 삼각산고 학교 교육공동체의 상호협력 관계 형성의 토대
2. 학교협동조합 추진과정에서 더욱 긴밀해진 교육공동체들의 협력과 소통
3. 학교협동조합 운영 과정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협력 문화 확산

1 삼각산고 학교 교육공동체의 상호협력 관계 형성의 토대

2011년 혁신학교로 개교한 삼각산고에 지원 또는 발령을 받은 교사들은 교장, 교감선생님과 함께 토론을 통해 성장, 나눔, 평화라는 교훈을 정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미래역량을 키우는 혁신학교를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펼쳤다. 그 가운데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해준 몇 가지를 떠올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후변화 주제 범교과 프로젝트 수업 실행(2011년)

개교 초기의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도전과제로서, 자연생태계와 인류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8개 교과의 13명의 교사가 통합교과적 교육과정 운영과 참여와 협력 중심의 수업혁신을 모색하였다.

나. 우리동네햇빛빌전협동조합 창립(2012)을 통한 학교교육공동체와 마을 협력

기후변화 주제 범교과 프로젝트 수업 개발 및 실행의 경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동네햇빛빌전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다.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과 협력의 토대로서의 진로사랑방

2011년부터 시작한 학부모 진로사랑방(학습 토론방)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가 미래 세대의 진로교육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학습하고 토론하는, 상호협력과 소통의 귀중한 토대가 되었다.

라. 텃밭 동아리를 통한 공동체의 협력과 소통 형성

2011년 강북구청의 공휴지였던 학교 운동장 옆을 학교생태교육의 장인 친환경 텃밭으로 활용하겠다는 학교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학교 환경반 또는 학급단위 동아리의 학생들과 학부모 텃밭 동아리들이 만들어져 이 텃밭가꾸기 활동을 통해 서로 끈끈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올 2015년에는 그 텃밭에 구청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학교 밖 텃밭 대신 이젠 학교 옥상 건물에 교사, 학부모, 학생의 텃밭가꾸기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텃밭 활동은 2011년 이후로 지금까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지역이웃 나눔 겨울 김장봉사’로 이어져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협력과 지역협력의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마. 학교 밖 지역 단체 또는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 형성

성북교육청에 요청하여 2012년 학교와 지역 교육 단체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과의 활동 정보 공유는 이후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진로 활동, 봉사활동, 텃밭활동 등을 지역단체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학교와 지역의 협력 관계의 토대가 되었다.

2 학교협동조합 추진과정에서 더욱 긴밀해진 교육공동체들의 협력과 소통

학부모 진로사랑방의 독서 토론 등의 활동은, 미래세계의 변화 방향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지속불가능한 청소년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현대사회의 도전 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공감대를 깊게 하였다.

또한 함께 협력, 연대하는 텃밭활동은 자연스럽게 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호 깊은 이해와 신뢰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학교교육공동체간의 이러한 신뢰 관계는, 지나치게 높은 입찰가로 들어온 매점 운영자가 마진율이 높은 정체불명의 식품들을 판매함으로써 수지타산을 맞추려는 시스템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공동체간의 협력을 쉽게 이를 수 있게 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가. 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진로교육으로서의 창업가정신 교육과의 결합

2014년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기업가 정신교육으로서의 앙트십 프로그램과 디자인 씽킹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자기 주변이나 학교의 문제들을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협력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매점의 자진 철수 통보는, 최고가 입찰에 의한 매점 운영자 결정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으로서의 학교 교육공동체(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협력에 의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 2012년부터 우리학교 학생들의 진로고민을 함께 나눠주는 이웃 아저씨 멘토님인 지역주민(이철우, 경영학 전공)의 참여와 협력은 새로운 도전의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

나. 3주체(교사 2인, 학부모 대표 1인, 지역주민 1인)의 학교협동조합 연수 참여

마침 이러한 학교의 필요에 딱 맞추어 진행된 서울시의 학교협동조합 연수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한 삼각산고 3주체의 협력적 소통은 삼각산고에 절묘한 타이밍의 기회를 주었다. 이미 창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문제해결의 도전을 기다리는 학생들까지 가세한 학교교육공동체 4주체의 긴밀한 협력은 가장 짧은 3개월의 준비로 협동조합 창립과 매점(먹고가게)의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짧은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각 주체별 많은 참여 조합원(총 169명)이 결합된 힘은 혁신학교 5년차로서 그동안 쌓아온 교육공동체간 민주적, 수평적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의 힘이라고 판단된다.

3 학교협동조합 운영 과정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협력 문화 확산

가. 50여명 학생들의 3개 분과(사업기획/홍보/교육)활동 참여

학생들의 3개 분과 활동 희망자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 고민이 될 정도였다. 그 만큼 많은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의 수동적인 지식의 습득 이외에 뭔가 주체적으로 배움과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할 참여활동에 목마른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청소년 학생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생산적인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들도 겪으면서 배움과 성취의 성장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 그동안의 학생활동은 졸업생 교복 물려주기 사업, 매점 장소의 대청소 및 폐인트칠, 겨울방학의 협동조합 학습, 전교 학생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 수업 진행(나도 선생님 프로젝트 참여), 양정여고의 체인지 메이커 대회 사례 초빙 강연, 매점 개소식 행사 준비, 2015년 삼각산고 체인지메이커 대회 준비, 학생들의 인쇄 복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준비, 매점 게시판 만들기 진행 등이다.



나. 자발적인 학부모 조합원 활동의 엄청난 힘

학교 협동조합 운영 관련 학부모님들의 눈부신 활동은 가장 도드라진다. 숨가쁜 일정으로 돌아가는 학교의 교사 업무와 학습활동의 부담을 지고 사는 학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쓱쓱 해결하시는 것을 보며 감탄한다. 학부모님들이 협력하시면 못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을 정도다. 협동조합의 설립 과정에서의 주요 행정적 절차 처리부터 가장 힘든 이사장의 역할, 매점의 인테리어 및 가구 설계 주문, 매점 판매 운영 매니저 및 파트타임 근무, 졸업생 교복 세탁, 학교 개교기념일 축하 선물(향초1000개) 만들기, 옥상텃밭 학부모 동아리 등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협력은 끝없이 진화하는 것 같다.

다. 학교협동조합의 다양한 교육적 효과와 가능성

결국 교사, 학부모, 학생의 3주체는 삼각산고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과정을 통해, 학교를 둘러싼 교육공동체들의 더욱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만들어 내고,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래서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협동의 경제방식을, 세상을 바꿔나가는 새로운 방법과 힘을 배우고 있다.

우리가 협력을 통해 뭔가 우리 주변의 경제적, 교육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이러한 경험은 우리 학교교육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 기간 공동체의식이 깨어진 도시적 삶의 한복판에서 학교협동조합의 협력을 통해 가정과 마을과 학교의 공동의 고민을 해결하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새롭게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학교 업무에서 학교협동조합 만들기와 학생들과의 새로운 교육활동 기획과 실행 은 때로는 새로운 부담으로 버거울 때가 있다. 그러면서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즐거운 마음은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동시에 준다. 그리고 ‘힘들면 쉬엄쉬엄 가면 되고’라고 생각하면 맘이 훨씬 가벼워진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최대이익 추구라는 가치 속에서 희생되어온 공동체의 성장과 나눔, 그리고 자연과 사람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길을 학교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서 꿈꾸기 시작한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진로교사인 나에게 분명한 것은 학교협동조합 활동은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생활의 일부분인 경제적 영역에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경영 교육, 진로교육, 환경 먹거리 교육, 민주시민 교육, 공동체 교육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협동조합은 학교교육공동체들간의 주체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확실한 배움과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협동조합의 발전 방안

김명신
서울시학교협동조합추진단장

내용 목차

1. 학교협동조합의 현황
2. 학교협동조합의 비전
3.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정책 제안
4. 맷음말 - 서울시교육청의 과제

1 학교협동조합의 현황

현재 서울시에는 영림중, 독산고, 삼각산고 등 3개의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주 삼성고가 지난 주 창립총회를 열고 인가를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선사고, 국사봉중 등에서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있으며,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5~6개의 학교가 학교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작년 말 <교육혁신도시 서울> 플랜을 발표하며 20개 협력사업 중 하나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학교협동조합추진단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민주적 참여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를 설정하고 학교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과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해 각급 학교, 서울시와 교육청 등의 관, 그리고 지원단체가 서로 공유하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비전을 중심으로 지원과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원책은 학교협동조합의 태동기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단기적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교육혁신이라는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적 뒷받침 또한 필요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단순한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즉, 학교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교육혁신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모두가 공유하는 학교협동조합의 비전이 세워진 후, 이에 근거하여 정책이 운영될 때에만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협동조합의 비전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이유다.

2

학교협동조합의 비전

그렇다면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는 무엇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할까. 나는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가 학교라는 공적 공간이 진정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 공유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지역의 주 구성원이 집중되는 곳이기에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울타리는 여전히 너무 높다. 지역에서 여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학교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교육이 단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체험 학습과 같은 교실 밖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도 교실 밖 교육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교실 밖 교육을 위한 훌륭한 자원이다. 경제 활동이 단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학교와 사회적경제 조직을 잇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은 건강한 먹거리라는 목적을 공유하는 지역 생협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독산고의 경우 지역 자활기업의 빵을 학교협동조합 매점에서 판매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영림중과 삼각산고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단체와 함께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다양한 지원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학교가 마을로, 마을이 학교로 향함으로써 학교가 교과교육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전인격적 성장의 장으로써 거듭나야 한다.

3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정책 제안

가.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의 강화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교과서가 개발 중이다.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한 훌륭한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교과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선택과목이기에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 제안

- 사회과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경제 과목 교육연수 실시
- 교장, 교감 혹은 행정실장 연수에서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및 자율 동아리 중 사회적경제 동아리 지원
- 사회과 수업 시 지역 사회적경제 단체 활동가의 초청 강연

나.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현재 학교협동조합 설립 과정 중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공증 및 등기 시 학생조합원의 문제이다.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를 위해 학생들이 조합원으로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할 문제이다.

○ 제안

- 총회 시 참여공증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에서 공증변호사 지원
- 학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무상임대 가능하도록 변경
- 매점 판매 품목 제한에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예외 적용
- 학교협동조합 매점이 있는 학교에 전담 인력 지원

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확보

학교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매점 등 학교협동조합의 사업이 적자가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년마다 구성원이 교체되는 학교의 특성상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제안

- 사업의 안정화 및 다각화를 위한 학교협동조합 사업 모델 개발



- 매점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물류, 회계 등 지원책 마련
- 학교협동조합 홍보 강화와 조합원 교육 지원

라. 학교협동조합 간 연대성 강화

각 학교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별 학교협동조합은 자원이나 사업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학교협동조합들끼리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연대 사업을 벌임으로써 전체적인 규모를 키워 장기적으로 학교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제안

- 선배 학교로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립 멘토링
- 조합원 모집 및 조합원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 교복 공동구매나 공동 체험학습과 같은 연대 사업 실시
- 각자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자원 공유

마.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학교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사회와 여러 자원이 학교로 흘러들어 학생 교육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물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마을주민들이 학교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하나의 교육임을 인식해야 한다.

○ 제안

- 지역 내 사회적경제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 마을 장터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 자원과 공동 사업 진행
- 생협의 먹거리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사회 단체의 공익 캠페인 공유
-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통망으로써의 역할

앞서 제안한 사항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주도로 학교협동조합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과제로 교육청이 학교협동조합을 적극 끌어안아야 한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사업계획에 ‘학교협동조합 매점 시설지원 사업’과 ‘학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동아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올해만의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경제 동아리 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더욱 확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매년 동아리 지원 사업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 사회적경제 동아리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라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처럼 학교협동조합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지원팀을 구성하거나, 교육청 산하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경우 학교협동조합의 홍보,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지원, 학교협동조합 교육 및 전문가 양성 등 통합된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학교협동조합 및 학교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 제정에 힘써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로 인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공공성의 확대라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을 설득한다면, 학교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M.E.M.O





2015 제1차 학교협동조합 포럼

II. 지정 토론

1. 「사회적경제」 교육 사례 23
홍태숙 / 독산고 교사
2. 학교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41
장이수 /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학교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44
박주희 / 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연구위원



「사회적경제」 교육사례

홍 태 숙
독 산 고 등 학 교 교 사

「사회적경제」 교육사례

독산고등학교 홍 태 숙

목차

- I .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 배경
- II . 사회적경제 교육의 내용
- III . 사회적경제 교육의 기대효과
- IV . 앞으로의 과제
- V . 독산고 매점의 현재 모습



I.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 배경

1. 독산누리사회적협동조합 매점운영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 대두

2.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로 지정

II. 사회적경제 교육의 내용

1. 사회적경제 수업 실시



2학년 창체(자율)시간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수업 실시(주당 1시간)



II. 사회적경제 교육의 내용

2.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사회적경제 교육
- 협동조합 교육
- 공정무역 및 공유경제
-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II. 사회적경제 교육의 내용

3. 사회적경제 캠프(1학기)

- We can do that 감상
- 조별로 협동해서 점심 만들어 먹기
- 조별로 영화 마인드맵 발표하기
- 캠프 소감문 쓰기



We can do that
감상 ~



점심 만들어
먹는 시간~





영화에 대한 마인드맵 만들기



2015/05/01

캠프 마무리~





II. 사회적경제 교육의 내용

3. 사회적경제 캠프(2학기)



공동체마을 홍동마을 방문 예정
(1박 2일 캠프)

II. 사회적경제 교육의 내용

4. 협동조합 동아리 활동

1) '우리함께' (학생 상설동아리)

2) '에코옷장' (4주체 동아리)



III. 사회적경제 교육의 기대효과

- 학생들의 권리와 복리증진

- 1인 1표제 의결권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

- 공동체 의식, 협동심, 타인에 대한
나눔과 배려심 함양

- 학생, 교사, 학부모간의 신뢰감 증대

IV. 앞으로의 과제

- 매점 이외의 복지사업 모델 개발

-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한
사업 모색

- 학교협동조합간의 공동구매를 통한
친환경제품 단가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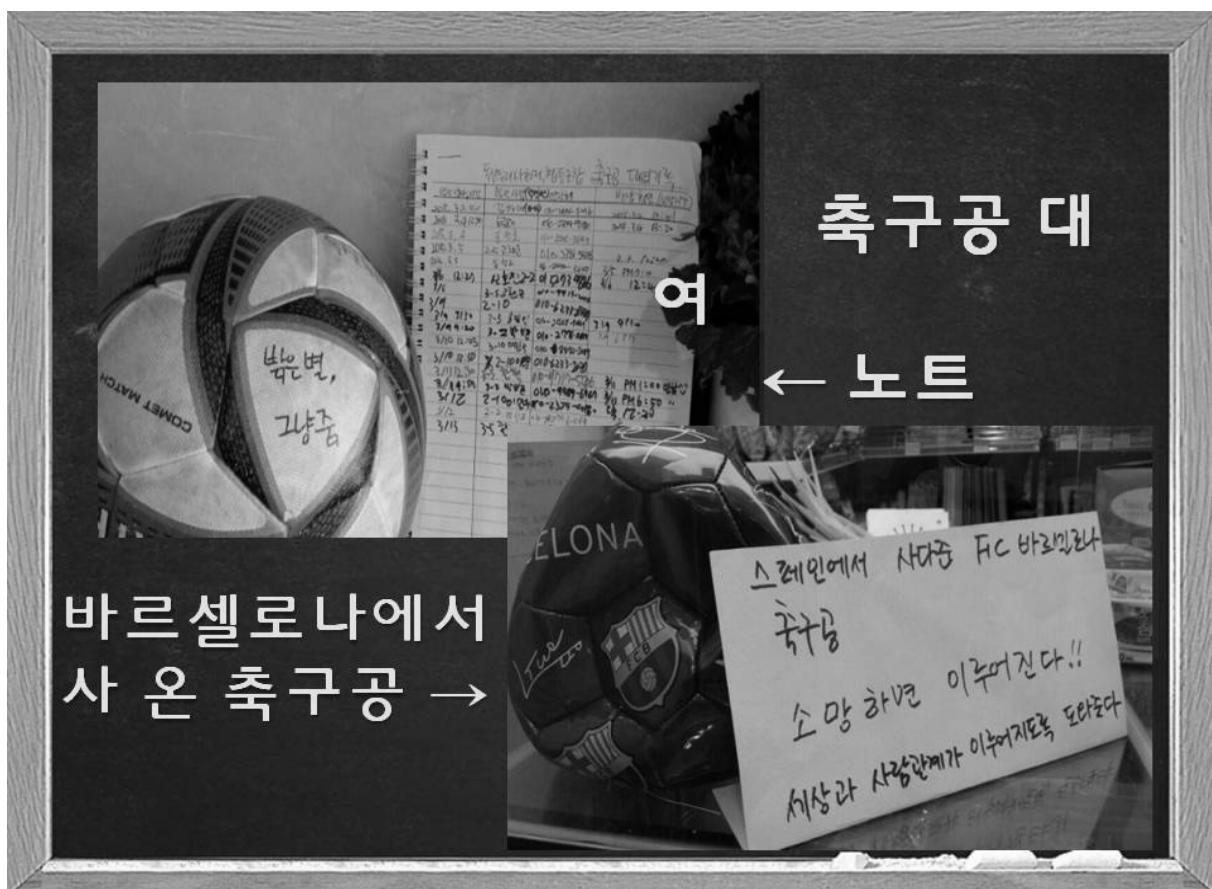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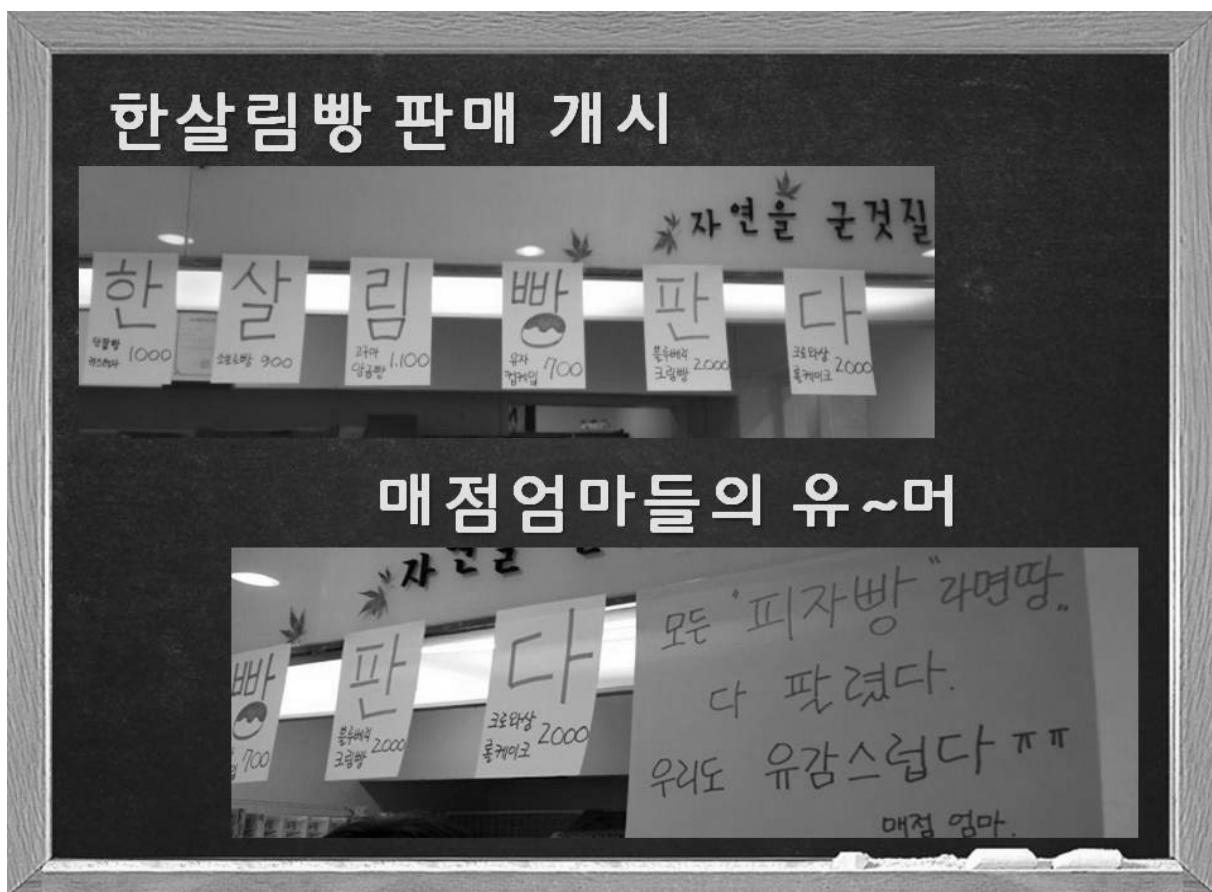


IV.앞으로의 과제

- 사회적경제 연수(교사대상) 실시
→ 교과수업 및 창체활동과 연계
-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교재 개발
보급

V.독산고 매점 모습

지금부터는 독산누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매점을 운영하면서 가꾸어 가는 독산고 매점의 현재 모습이 펼쳐집니다~





학생이 보관해 둔 라면

방학중!!

매점운영시간
오전 9:40 ~ 오후 2:00

※ 매점에서 점심밥상 모임 운영합니다
(도시락같이 먹기. 단식 없이도 가능합니다)

어때다 떡볶이도 해먹을까.... 2015/01

← 주먹밥
만들어 먹기~

야자 학생에게 한턱~ 세월호 리본 만들기

132/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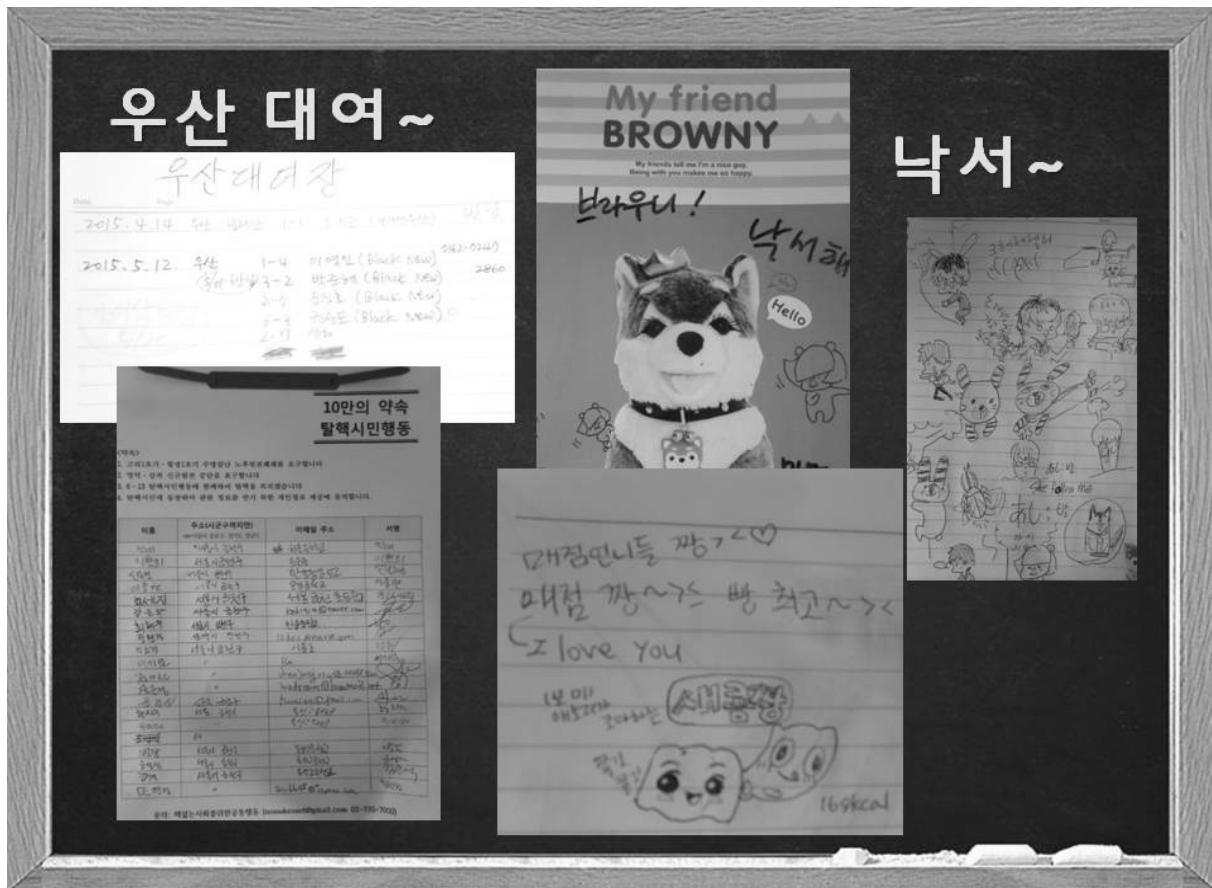
오늘날의 청춘을
마련하는 아름다움
인연하는 우수사진으로 여는거리
아름다운 건강식의 유통
여전 유통로를 꿈꾸어온
정신을 살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3
[정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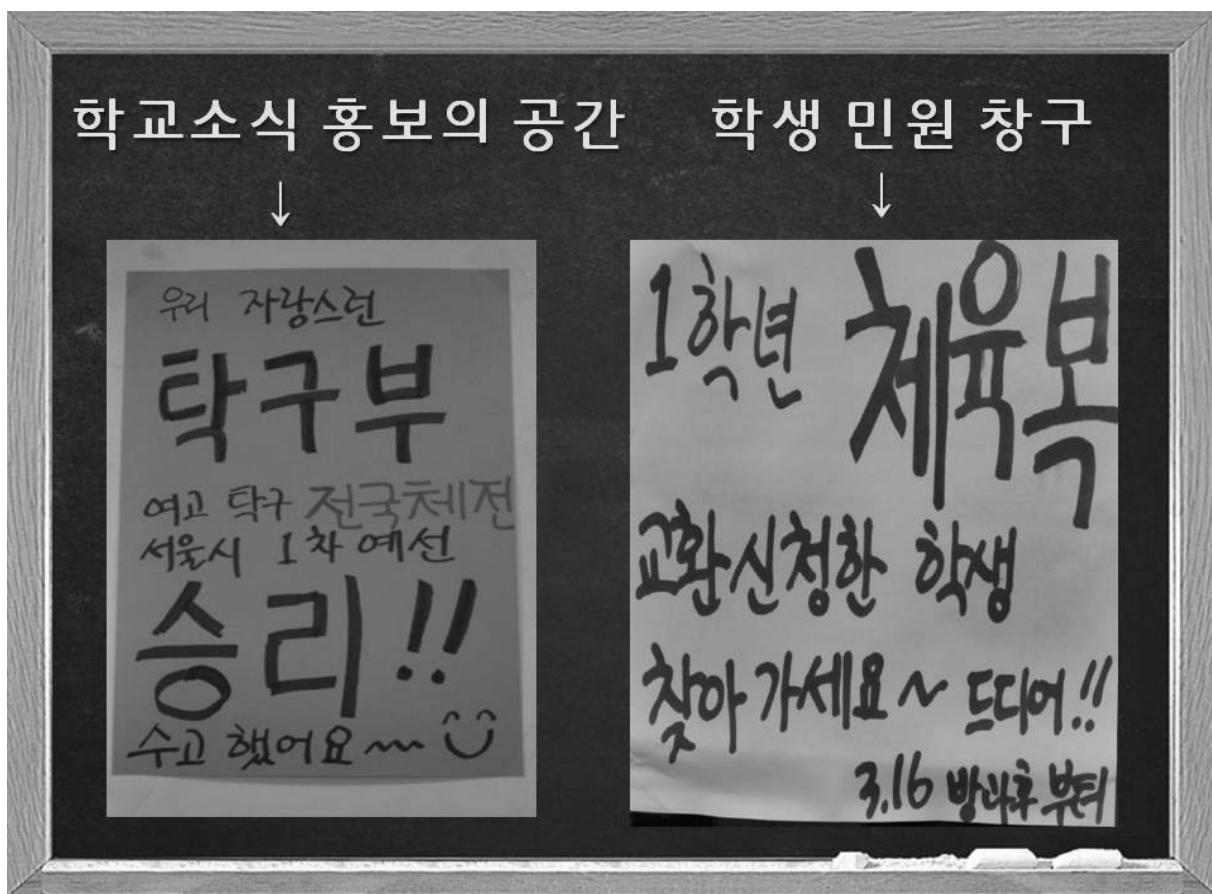
사랑하는 노인에게
증정하는 특별한 선물,
매점에서

상장 1944
국내 179845

"세월호" 리본 만들기 신청
1월 19일 (월) 요일
오후 1시: 30 ~
장소: 매점에서
※ 꼭 신청하세요 ^~^

2015/01







위로와 치료의 공간~



핸드폰 분실한 학생과 공고문 쓰는 이사님~





때로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쏘기도~



2015.

방학에는 아이들이 도시락
먹는 공간으로 변신~ →

매점 운영시간은 때때로 탄력적~인간적~

매점 엄마가
아파서 잊찍 갑니다
추운데 돌아가게 해서
많이 미안해요 ㅠㅠ
2015. 2. 11.



학부모의 편안한 홍보공간

* 독산고 2 학년 수련회 대비 특강 *

캡핑을 알려주마

언제: 4월 3일(금) 오후 4시 ~ 7시

어디: 운동장 옆 농구대 뒤

신청: 매점 엄마에게
(참가비-식재료(강자 2, 양파 2, 후라이팬
상추, 쌀 1봉지 등 ...)
이나 2000 원 ... 택 1)
* 캠핑의 닷인(?) 아버지 모임(4명 - ??)과
함께하는 한끼식사와 삼겹살 먹기
체험신청 선착순(백지작라) 20명

세월호 1주기 추모글 모음

학교에 들른 아버님 책에 푸~욱 빠지다

장애인 단체 물품 판매 장소 대여

↓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네오 누리집
가격: 1만원 연면적이: 2평

→

↑

연출 아니예요 ~



세상을 바꾸는 마개 2g 운동

세상을 바꾸는 마개 2g

페트병마개를 모아주세요.
먼저 라벨에 쓰여있는 재질을 확인해주세요.
병은 PET, 뚜껑은 HDPE, 라벨은 PP 등 각각의 재질이 다릅니다.

PE 재질 마개만 모아서

여기로 넣어주세요

애들아,
아시아 어린이에게
마실물을 선물하자!

페트 마개 2g이 만들어 내는 놀라운 기적
페트 마개를 모아주세요

해마다 5살 이하 아동 150만 명이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UN)

어떻게 참여할까요?

- 페트병 음료를 마시고 난 뒤 분리수거 합니다.
- 재질이 다른 페트 마개는 따로 모아서
- 6월 30일까지 마개를 학교로 가져옵니다.
- 독산고등학교에서 모아진 페트 마개는 아이쿱으로 전달되고
- 아이쿱은 마개 1개 1원 + 30원의 생수기금을 더해서
-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와 함께 제3세계 어린이에게 마실 물을 선물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2g
마개

기 간: 5월 6일 ~ 6월 30일
내 는 곳: 2-1 칠판, 서주영
2-2 이민자
2-6 문복빈
객점 이미향 활동가

주최 협동조합동아리 '우리 함께' 지도교사: 홍태숙 활성현

독산누리 세계로 세계로~

**일본인
방문객과~**

2015/04/10



수요 점심시간(詩衍)

점심시간(詩衍)

- 시를 즐기는 점심시간 -

(점심시간이면)

독산고의 동산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시와 절음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경로로 찾자' 단체)

연 제: 매주 수요일 경상시간 1시경

어디서: 테-스강 협 통신

누구와: 시를 읽어주고 싶거나, 우연히 시를 듣고 싶은 독산고에 있는 누구나

문 의: 1학년 연숙, 2학년 영진, 청년혁신활동가 이미향(阡2) 010-3240-8346

학생, 교사, 학부모, 직원 등 모두 환영!



학교 뒷뜰에서 쑥뜰기~





족구 삼매경에 빠진 이사장님~



정기총회후 찰~각~



이사회 모습





학교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장 이 수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내용 목차

1. 삼각산고의 4주체의 상호협력관계
 - 가. 교사들의 준비된 ‘힘’
 - 나. 학부모 조합원의 힘
 - 다. 앙트십 프로그램과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으로 무장된 학생들
 - 라. 지역주민과의 소통

삼각산고등학교는 2011년에 개교하여 1기 혁신학교를 잘 마무리하고, 2015년 제2기 혁신학교 재지정을 받았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혁신학교의 힘은 학교협동조합을 만드는 데도 개방적인 형태로 다가온다.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교육과 연계된 학교 협동조합의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노력하는 혁신학교만의 장점이다.

1 삼각산고등학교의 4주체 상호협력 관계

가. 교사들의 준비된 ‘힘’

삼각산고의 학교협동조합의 태동의 배경엔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주제 범교과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하고, 수업혁신을 통해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햇빛발전소 1호기’를 협동조합으로 삼각산고등학교에 세워서 학생들에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환경교육을 한 교사들의 역할이 큰 힘이 된다.

삼각산고의 교사들의 또 다른 힘은 ‘대화’와 ‘이해’이다. 학교협동조합 창립 기획 중 동료교사와 학교관리자들에게 설명하였을 때 그들이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온 것이다.

정미숙 선생님이 학부모와 함께한 ‘진로사랑방’은 교사와 학생의 2주체에서 학부모를 더하는



3주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직장에 다니시는 학부모들도 내 아이의 진로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게 준비된 진로사랑방은 한 달에 한번 저녁 7시부터 9시에 모인다. 첫째시간에 ‘나’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은 ‘누구의 부모’가 아닌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 수업을 통하여 가슴 풍클하게 나를 돌아보며,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부모들은 이 시간을 통해 내 아이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삼각산고의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나. 빨간 앞치마의 힘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먹고가게’ 개소식 때 모든 진행을 도와 준 분들은 ‘삼각산고등학교 학부모회’ 학부모들이다. 삼각산고 학부모회 총회 때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전하는 말은 ‘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아이를 위해서 학부모회 일을 해 주세요’이다.

삼각산고 학부모회 대의원 대부분은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이다. 협동조합이 조직되려면 사람이 모여야 한다. 학부모 동아리는 옥상 텃밭 가꾸기, 흙으로 만드는 Art, 향초 만들기, EM만들기, 천연 액비 만들기 친환경 농사짓기, 숲 학교 등 이 있다. 대부분의 강사는 학부모님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텃밭 가꾸기와 친환경 농사짓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관심은 기존 매점에서 파는 질 나쁜 먹거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진로사랑방과 학부모동아리가 학교와 학부모를 이어 주었다면, 학부모가 학생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축제 먹거리 장터’이다. 2014년 축제 주제는 ‘놀이동산’이었고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이 먹거리장터를 열어주길 원했다. 학부모 축제 준비 위들의 모임에서 먹거리 장터 재료 선정과정에서 의견이 다름이 있었다. 몇몇 학부모들이 “학생들은 MSG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없어서 안 먹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일 년에 한번 준비 해 주는 것인데 엄마 표 음식을 만들어 주자”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빈대떡, 까르보나라 떡볶이, 고추장 떡볶이, 감자 삶은 것, 옥수수 삶은 것, 레몬에이드를 직접 만들었다. 학생들은 “매일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은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만 좋아한다는 편견이 잘못 됐다는 것을 알았고 협동조합을 준비할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된 부분이었다.

협력관계가 된 학생과 학부모들은 겨울엔 지역에 독거노인들에게 김장을 나누는 시간을 같이 가졌다. 같이 김장을 담는 것도 좋았지만 더 가슴 따뜻했던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한 배달이었다. 김치를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을 기다리며 야쿠르트 7개를 한 줄로 나란히 놓으신 할머니 “고마워 이것 마셔” 학생들은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내년에는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눠요”라고 말했다. 사람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교육일 것이다.

다. 앙트십과 디자인 싱킹 프로그램으로 무장된 학생들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 체인지 메이커

학생 주체적으로 학교나 마을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협동조합은 개개인의 힘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 가능하게 하는데 그 힘을 더 한다.
ex) 졸업생 교복 물려주기, 매점장소의 대청소 및 페인트칠, 매점이름 공모, 학교 매점에서 파는 먹거리의 문제점 제시와 학교 협동조합의 필요성 소개.

• 나도 선생님

2014년 학교협동조합 분과위 학생 22명이 모여 1시간짜리 수업을 만들었다. 수업내용은 학교협동조합의 필요성, 가치, 국내사례, 국외사례 등을 연구하고 회의를 통해 수업 안을 정리하였다. 22명의 학생들이 두 명씩 한 학년 10반에 들어가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해 수업을 하였다. 이 수업은 조합을 홍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소통

2014년 양정여고 학생을 초대하여 ‘체인지메이커’ 활동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2015년 5월에는 학교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선사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삼각산고를 방문하였다. 선사고 학생들의 질문 중 “우리가 학교 협동조합을 시작할 때 꼭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 있을까요” 삼각산고 2학년 협동조합 대표학생의 대답은 “첫째, 절대 대학교를 가기 위한 스펙 쌓기로 이 일을 선택하지 마세요. 둘째, 회의시간을 잘 지켜라. 회의내용은 일주일 전에 공지하여서 분과위원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올 수 있게 하라.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삼각산고 학생의 대답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해줄 메세지를 알게 되었다.

라. 지역주민과의 협력

김장봉사를 통해 마을어르신들과 알게 되었고 학교협동조합을 통하여 더 많은 분들과 협력, 상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정미숙 선생님의 글을 통해 ‘준비된 교사’의 힘은 학부모, 동료교사, 학생, 지역주민을 움직여서 ‘사람다움을 느끼고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에 시작하는 공유경제(앙트십) 동아리를 통해 좀 더 발전된 학교 협동조합의 유형을 기대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학교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박 주 희

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연구위원

1 이상훈 발제문 관련 : 외국 프로그램 연계 및 다양한 교육과정과 협동조합 연계와 관련하여

가. 영국 학교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소개와 활용

발제문에 나온대로 영국은 학교 운영 자체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며, 교육과정의 내용 등에서도 다양한 지점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다.

국의 학교협동조합 사례에 대해서는 토론자가 집필한『만들자, 학교협동조합』에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중 영국의 경우 협동조합교육은 협동조합 운동가들과 교사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오랜 협동조합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이지만, 정작 공교육에서 협동조합과 관련한 교육 시간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를 배울 때 협동조합과 로치데일 선구자들을 잠깐 언급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이에 협동조합 운동가들은 ‘자라나는 세대에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알려낼 길을 찾다가 특성화학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교사들 역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학교의 변화에 목말라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으며 상호협력하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해가고 있다.

성공회대에서도 이러한 영국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해피브릿지협동조합경영연구소 등에서도 몬드라곤 및 해외 협동조합관련 유수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교육과 관련한 연구자들간의 정기적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다 풍성하게 우리나라에 알리고 현실 적용 가능하게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

또한 영국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또 다른 함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은 기준의 잘 자리잡은 협동조합들의 역할이다. 영국의 Cooperative Group이 학교협동조합 교육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의 생협들도 할 사업만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많다. 한살림 청소년 식생활교육 강사 흥덕고와 복정고와 연계하여 학생조합원들에 대한 식생활교육은 진행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교육은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교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다. 예컨대, 이번 달에 필자와 생협과 함께 흥덕고 학생조합원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에서는 한 학생분과 위원들이 자신들이 진행해본 식품첨가물 색소 실험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제안하자 담장 교사는 이를 과학교과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하기도 했다.



나. 다양한 교과목과 협동조합의 접점 고민

또 하나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부러운 점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를 사회과목이나 경제과목만으로 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영국 생활협동조합(The Cooperative Group)에서 발간한 초등교육과정용 공정무역 교재 『Make your School Fairtrade Friendly – a co-operative guide for primary schools』는 공정무역의 개념과 역사부터 경제를 포함한 미술, 음악, 역사, 수리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융합 교육의 교재로 활용된다. 이처럼 협동조합과 관련한 교육은 역사나 사회, 경제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직간접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교과과정에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교육을 연계하려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을 알리고자하는 협동조합 운동 측면에서만의 필요만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다양한 교과과정을 생생하게 살아 있는 체험에 기반한 학습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주목한 혁신교육측면에서의 필요가 만난 결과이다.

학교협동조합은 이러한 교육이 체험에 기반 하여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틀거리가 된다. 용인의 흥덕고에서는 선생님들끼리 협동조합 공부를 하면서, 각 과목에서 어떤 부분들을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수업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예컨대 가정과 시간에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하고 이를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또한 중학교에서 역사수업시간에 우리마을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고, 마을을 통해 진로 직업체험을 하고, 한 학기동안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통합교과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학교 협동조합과 연계될 때 더욱 생생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필자가 경기교육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체험학습관련 학교협동조합 모델연구도 말레이시아 학교협동조합의 스쿨튜어리즘의 한국적 변용을 고민하고 있는 사례로서 교육과정과 협동조합의 접점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협동조합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론 및 역사 전달만이 아닌만큼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과의 접점에서 협동조합 교육이 고민되었으면 한다.

2 정미숙 발제문 관련 :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활성화 관련하여

가. 학부모, 교사, 지역대표의 학교협동조합 연수프로그램의 성과와 확산

삼각산고의 경우 발제한대로 혁신학교 5년 동안 쌓아온 역량과 노하우,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탄탄히 다져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한 학기 이상 함께 학교협동조합을 배워가고 얘기해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울시의 7주간의 학교협동조합설립교육에서의 교육과 멘토링이 힘이 되었다고 본다.

현재 5월 20일 총회를 한 관악의 삼성고, 지난 3월부터 학부모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선사



고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다행히 각 지역 사회적경제 특화사업단 및 여러 자원이 결합되어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인력과 프로그램이 부족했었다. 보통 정책을 세울 때 매점 외관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만을 중요시하고 교육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학부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새로 설립하려는 학교에서의 주체 양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나. 학교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삼각산고의 경우 혁신학교의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학생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모범 사례이기도 하다. 앙트십 프로젝트, 체인지 메이커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의 폭을 넓혔다.

참여와 민주주의는 근육키우기와 같아서 처음부터 바로 작동되기는 어렵다. 학생들 역시 자기들의 언어로 얘기하고 참여하는 연습을 해야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다. 지금은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작년의 학교협동조합 지원네트워크의 활동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중 기초교육은 이번 해부터는 서울시는 추진단의 청년혁신활동가들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진흥원의 직접사업으로 네트워크 청년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맞춤형 아카데미를 통해 각 분과위원회 프로젝트 활동을 설계해가는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개발 중이다.

여기에는 여러 교사들의 관심과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이 결합되어야 한다. 다만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民間 역시 재능기부만으로는 이어가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지난 서울시사회적경제 교과서 3차 TF때 이를 위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청소년 협동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교육 활용에 따라 적정한 수당을 주어서 이러한 상호공유를 촉진해보자는 아이디어들이 현장의 교사와 참석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했다. 일례로 동그라미재단의 기업가 찾기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경제 참여 프로그램들은 발굴되고 공유되어 확산되어 왔다. 서울시교육청 및 지자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에서도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3 김명신 발제문 관련 : 서울시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정책 연계 및 학교협동조합 상호멘토 체계 확립 중심으로

가. 서울시 사회적경제 교과서와 사회적경제 교육 연수의 연계 필요

발제문대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교과서와 현재 학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은 상호 연계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중학교는 인정교과서, 초등학교는 보조교재, 고등학교는 워크북 위주로 개발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다. 인정교과서로 하더라도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교과서만이 아닌 서울형 교과서인만큼 이러한 현장의 흐름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되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학교협동조합추진단, 서울시 학교협동조합간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및 학교협동조합 관계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가운데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학교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2013년 시작된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이 초반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학교협동조합간 협력도 강화되고, 서울시 학교협동조합추진단의 정보연계와 학교협동조합간의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가고 있다.

다만 학교협동조합간의 협력 강화와 상호멘토링을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상호멘토링 사업 및 설립컨설팅 사업 등을 연계하여 학교협동조합을 처음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학교의 어려움을 선배 학교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열정폐이만이 아닌 적정 수당을 받아가며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서울시학교협동조합 추진단 예산과 인력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에,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이미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신나는 조합 등의 인력과 예산,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M.E.M.O

